

## 손톱을 정리한 바퀴벌레, 그리고 아빠

심유진

나는 한 때, 벌을 꿈꿨다. 정해진 자리와 정해진 일, 공장에서 찍어내듯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꿈꿨다. 정확히 말하면 최정점인 여왕벌 보단 일벌을 꿈꿨다는 것이다. 일벌을 꿈꾸던 애벌레는 벌집 안에서 꿈틀거리며 참 애썼다. 벌이 되려고.

하지만 성충이 돼서야 깨달았다. 난 개미 유충이었던 걸. 내 몸엔 내가 꿈꾸던 일벌의 멋진 노란 줄무늬도, 포실포실 목도리도 없었다. 그렇게 땅에 바싹 얹드려, 개미로 살아갔다.

성충이 된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다. 미래만을 꿈꾸며 멀리 보던 유충 꿈틀이는 이제 개미로서 땅만 우두커니 내려다보며 지내게 되었다. '난 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꿀을 찾아 자유로이 꽃들 사이를 드나들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개미는 매일 생각했다. 그렇게 개미로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한순간 눈을 뜨었다. 개미의 생활은 내가 꿈꾸던 벌의 생활과 다르지 않았다. 내가 꿈꾸던 건, 벌의 외향이 아니었다. 벌의 날 수 있음도 아니었다. 그저 벌의 체계적인 일, 그에 대해 반복적 그리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일상. 그것을 꿈꿨던 것이었다. 개미로 지내게 된 것이 크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바쁘게, 개미는 정말 바쁘게 지냈다. 개미는 열심히 설탕을 모아 나뭇잎을 끌어 가족을 떠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다시금 개미로서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2020년 초, 내 '개미의 삶' 동화는 끝이 났다.

'COVID-19'이라는 다큐가 내 개미 등딱지 위 신발이 되어 날 짓밟아 터뜨렸다.

열심히 다니던 공장과 물류센터는 모두 일이 줄어 인원을 줄여나갔다. 신생 개미인 나는 가장 첫 번째로 군집에서 쫓겨나왔다.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다녔다. 먼지 때문에 눈을 깜빡일 때 마다 꺼끌거리는 CD포장회사, 한국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국 쇼핑몰의 박스포장 회사. 최저시급이든 식대를 빼면 최저시급이 안되든 일단 일이 된다면 무조건 다녔다. 더 이상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개미의 삶은 끝이 났기에.

그런데 마지막에 갔던 중국 쇼핑몰 회사가 화근이었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중국인과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지원이 불가했다. 사실 상 아무 증상이 없어 말 안하고 지원하여 일하면 그만이었지만, 만약에라도 나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고 생각하면 아찔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까 두려웠다.

나는 집 한구석에 멀뚱히 그저 내가 열이 안 나기만을 미친 듯이 바꿨다. TV를 봐도 저 연예인은 얼마를 벌까, 저 CF를 찍고 얼마를 받았을까 온통 돈 생각 뿐 이었다. 그래서인지 한 채널에서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리모컨을 꺾꺾 누르며 채널을 돌려댔다. 한참을 둘러보다, 한 영화채널에서 손이 멈췄다. 영화 '김씨표류기'를 방영하고 있었다. 내용은 뻘뻘하게 살아오던 직장인이 한강 가운데 무인도에 정착하게 되고 원초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일상에 애정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인 한 여자의 시각이 담긴 작품이다.

그 영화를 멀뚱히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났다. 아빠와 지금과 같이

TV로 '김씨표류기'를 볼 때였다. 영화 속 여주인공은 매일 방 안에서만 지내며 걸보기에 폐인처럼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이다. 정확한 시간에 기상해서 아침운동, 칼로리를 정하여 옥수수통조림 속 낱알 개수를 세어 먹고 다시 운동, SNS에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네티즌과 소통하고 다시 저녁이 되면 명상을 하며 잠이 든다. 이를 보며 아빠는 '집구석에만 있나, 아이고야.. 인나서 밥 묵고 뭐 하다가 자뿌른 그게 사람이야, 바퀴벌레지' 걸쭉한 사투리로 한 소리 하곤 했다. 그 생각을 하고나니, 아빠 볼 면목이 없었다. 아빠 딸, 성실한 개미는 이제 바퀴벌레가 되었다.

벌이 되지 못한 개미로 살아가길 3년이 조금 안된 시점, 내 등은 코로나에게 짓밟혀 터지고 바퀴벌레로 변모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창문을 열고 씻고 난 뒤 밥을 먹는다. 지원하지도 못할 희망고문 뿐인 아르바이트 앱을 멍하니 바라보다 다시 잠이 들고, 다시 일어나선 마스크를 쓰고 잠옷 채로 집 앞 할인마트에서 맥주를 사와 과자와 계란 후라이 몇 장과 함께 먹고 다시 잠이 든다. 그야 말로 더듬이 없는 바퀴벌레 한 마리였다.

다시 똑같은 바퀴벌레 일상이 진행되고 있을 즈음, 아르바이트 앱에서 재택근무를 발견했다. 번역, 디자인 등 많은 재택 아르바이트가 있었고 그 중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바이럴마케팅 대리 작성 업무를 지원했다. 바이럴마케팅이란 브랜드 혹은 제품 홍보를 위해 짜여진 원고를 블로그나 SNS에 올려 진행되는 마케팅을 말한다. 회사에서 주는 광고내용을 받아 내가 원고를 작성하여 컨펌 후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앞서 노트북이 필요했다. 오랜만에 본가에 방문했다. 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일은 잘 하고 있느냐 물었고 난 대충

얼버무렸다. 아빠는 대충 눈치를 쳤는지 “코로나 때매 나가라 카문 고마 때려치아라! 지 회사원 마스크 챙길 생각을 해야지 짤라뿌는 회사는 고마 됐다캐라!”라며 괜스레 더 목소리를 높였다. 난 쉬는날 온거라고 어영부영 넘어가며 머쓱함에 머리를 긁적였고, 난 순간적으로 더듬이를 숨기는 바퀴벌레 같은 내 모습에 씁쓸해졌다.

바이럴마케팅 일을 시작하고 수입이 조금이나마 생겼다. 다시금 설탕을 모으는 재미가 된 기분은 들었지만 기지개를 켜고 주변을 둘러보면 머리카락이 늘어진 방바닥, 말 한마디 하지 않아 굳어버린 얼굴 근육, 나는 잠옷바지 입은 바퀴벌레 한 마리일 뿐 이었다.

재택 아르바이트를 한지 두 달이 넘어간 시점, 여러 재택알바를 하며 집안에서만 지냈다. 유일한 동선은 편의점과 할인마트, 마스크를 사러 약국이 전부다. 그 마저도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으니 마스크를 사는 빈도도 적었다. 회사원 출근시간이 지나 도로가 조용해질 쯤 느즈막히 일어나 씻고 노트북 들여다보고, 출출해지면 생라면이나 과자를 먹으며 일을 하다 오늘 할 일이 떨어지면 대충 끼니를 때우고 핸드폰만 본다. 그러면 쳇바퀴처럼 내일이 온다.

한 날은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이 문구는 무언가 의문이 들었다. 평범했던 삶에 코로나는 침표처럼 문장의 중간을 끊으며 들어왔다. 그렇다면 코로나 종식 후엔 침표 이후의 문장 즉, 사람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같이 진행 되는게 아닌가? 영상은 코로나를 침표가 아닌 ‘마침표’라고 말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형태가 많아지고 비대면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진 시점,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기업 고용주들도 출퇴근 근무와 재택근무의 업무효율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않은 바,(오히려

효율이 좋아졌다는 평도 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코로나 창궐 이전과 달라진 사회가 도래할 것 이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을 보고나니 자기합리화인지 깨달음인지 무언가 끝없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신종플루와 에볼라, 메르스를 지나며 코로나만큼 생명적, 사회 경제적 위협이 된 질병은 없었다. 코로나의 파급력은 이미 질병 수준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는 곧 시장의 변화를 야기했고 이는 산업, 업무 체계 변화로 이어졌다. 코로나 종식 이후의 사회가 전과 같아질 수 없다고 가정 해보자. 코로나를 계기로 바퀴벌레가 된 나는 어쩌면 한순간 비극을 맞이하여 등터진 개미가 아니라, 언젠가 다가 올 새로운 모습의 사회 속에 살아갈 신종 개미의 유충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 그놈에 벌레를 벗어나서 한 떨기 꽃이나 될 순 없는건지, 끝없이 떠오르던 생각을 마무리하려 기지개를 켜다. 기지개를 켜며 주먹을 꽉 쥐는데 손바닥이 아파왔다. 일을 쉬며 손톱을 깎지 않아 긴 손톱이 주먹을 질수록 손바닥을 찢어왔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해보니 꼭 사람 사는 모습 같았다. 낮이 되면 손을 펴듯 각기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다시 퇴근을 하면 손 한가운데 주먹으로 모이고, 다시 퍼졌다 모인다. 손을 보며 깨달았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의 손은 안전을 위해 계속 주먹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손톱, 구성원 간의 서먹함은 주먹을 아프게 한다.

몇 달 전 갔다 온 본가에서의 분위기가 떠올랐다. 오랜만에 주먹으로 만난 우리 가족은, 내가 일할 때는 바쁘다며 연락 못하고, 바퀴벌레가 되고 나서는 면목이 없어 연락을 안하다보니 서로 모르는 근황도,

멋쩍은 순간도 많았다. 손톱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먹상태에선 손바닥이 꽤나 아프다. 난 손톱자국이 패인 손바닥을 바라보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 들었다.

또각또각 손톱을 자르듯 툭툭 아빠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다. 아빠는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도 없이 한마디 하셨다. '짤렸나?' 느닷없이 노트북을 가져가더니 몇 달 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니, 급하게 직장부터 묻는 것도 당연했다. 헛웃음이 나오며 내 그간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다. 아빠와 나 사이의 손톱을 깎아나가며 한참이나 통화를 했다. 다시 만날 주먹에선 더 이상 손바닥이 아프지 않게 하리라 다짐하듯 아빠와 더 많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막내딸~ 엄마한테도 전화해줘' 아빠 목소리 옆으로 엄마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다들 내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 들뜬 목소리였다. 그간 일하느라, 일을 못하느라 신경 못 썼던 가족에게서 다시금 따뜻함이 느껴져 목구멍이 간지러웠다. 오랜만의 손바닥 품 속 이었다.

그렇게 코로나로 거의 한 해를 채운 지금, 휴지통에 쌓여가는 마스크는 당연해지고 편의점 가느라 잠깐 신은 양말도 답답하게 느껴졌다. 코로나는 일상이 되었고 마스크는 사람의 예의를 결정짓는 척도가 되었으며 이 시대의 영웅은 영화 속 로봇이 아니라 의료인이 되었다.

'이쁜 딸! 밥 뭐 못나?' 그 날 이후 점심시간마다 아빠에게 전화가 온다. 사회생활을 할 땐 바빠서 못 받거나 주위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잘 받지 않았을 전화를 이전 매일 점심시간, 퇴근시간 마다 주고받는다. 아빠는 혹여 딸이 라면만 먹고 살진 않을까 매일 검사를 하듯 물어봤고, 난 그 덕에 오늘은 물국수, 오늘은 간장계란밥, 오늘은 미역국 끓여 먹었다며 보고를 올렸다. 그러면 아빠는 '우리 똥깡아지

잘 못네~'하며 칭찬도장을 하나씩 찍어주셨다.

더 이상 가족과 연락하며, 혹은 본가에 방문하며 어색하지 않다. 원치 않게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 많아진 내 시간엔 더 가족과 통화하고 만날 수 있었다. 예전엔 본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나를 반찬 하나라도 더 가져가라며 아쉽고 아련하게 바라보던 엄마가 이제는 본가만 내려가면 "백수 아가씨, 아직 반찬값 정산이 안됐던데요?"라며 장난도 걸어온다. 그만큼 우리의 만남은 편안해졌다. 가족과 나는 더 이상 서로 그립고 아련한 존재가 아닌 당연하고 항상 즐거운 사이가 되었다.

코로나는 나에게서 삶의 계획표를 앗아가고 '시간'을 주었다. 잠깐 쉴 시간, 그리고 난 잠깐 멈춰서 주변을 돌아봤고, 여유를 얻었다. 시련일 수 있다.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이십대 청춘에 걸림돌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손톱'을 정리하며 난 그 돌에 잠깐 기대 쉬려고 한다. 이제 나는 주먹을 아무리 쥐어도 아프지 않은, 아빠가 말하는 '집에서 밥묵고 자뿌는' 바퀴벌레다. 난 벌이 되지 못한 유충을 넘어, 등터진 개미를 지나 반들반들 궁둥이에 반듯한 손톱을 가진 나름대로 혼자 해피한 그런 바퀴벌레가 되었다. 나름대로, 내 멋대로 적응해 나아간다. 앞으로 백신이 나와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될지, 아니면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 더욱 척박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 나는 더 이상 먼 미래를 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한 바퀴벌레로 오늘도 아빠와 통화를 한다. "아빠, 딸래미 오늘은 김치볶음밥 해먹었다?"

삶은 매번 위기를 마주한다. 사회도 매번 다른 위기를 마주한다. 모두가 초면인 내일을 살아가는 생활, 어떤 위기를 마주할지 모르는 삶이다. 그렇다면 절망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그 위협에 적응하자. 그리고 더 수월해질 내일을 꿈꾸자. 그렇게 나는 삶에 적응해 나간다.



오늘도 바퀴벌레는, 반듯해진 손톱으로 아빠와 통화를 하며 행복하게 적응해간다.